

## 그리스도인이 되다

### 왜? 무엇을? 어떻게?

#### 왜 내가 관심을 써야 합니까?

죽음과 세금, 이 두 가지는 누구나 확실히 알고 있는 가장 공통된 말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 본능은 죽음을 무서워하며 그길을 피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어떤 돈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죽은 시체를 장래 의학이 좀더 발달하면 그병을 고칠까 하고 그 시체를 얼려서 보관해 두기를 앓나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다만 몇 해라도 더 살기 위하여, 늙어가는 단계를 막을 수 있는 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귀한 영생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옳다고 실오라기 만큼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인생의 인생품질에 관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 즉 기쁨과 자신의 충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만 번번히 만족을 얻지 못하며 참 평강, 즉 마음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귀, 육체미, 사회인정, 여유시간, 큰 화면 텔레비전, 발무다(Bermuda)로 여행, 이 모든 것이 인생과 영혼에 부질없기 때문에 참되고 끈기있는 안도감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누가 참으로 진실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바람직할 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공식을 발견했다면, 이 공식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닦을 수 있는가를 배우고 노력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고 그리스도교는 담대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거듭남” 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엔 육체의 욕심(sin nature..죄의 성품)을 따라 난 것입니다. 주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남” 이라고도 하며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에 가입이 됩니다. 이 “새출생”에서 우리가 새 성품을 얻으며 이 성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은사(선물)받은 자에게 대하여 성경은 “구원을 얻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소리질러 “사람살려요”라는 말이 바로 “건져주세요”라는 것과 같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이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얻었다” 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을 타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이 항상 우리 뒤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삯(형벌)에서 건짐을(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삯(형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선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을 빚어 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만약 죄인같은 기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죄인같은 기분이 없을 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면 어딘가 기본적으로 힘이 있고 또 우리주위의 온 세상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것이 올바른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엉뚱한 짓을 하므로 그저 불평을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욕(죄)”의 결과이며 혹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과 그의 뜻에서 끊어져 멀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같은 느낌을 가지든지 말든지 우리 모두가 이 사욕(죄)이라는 병에 지장을 받으며 예수님의 속죄하신 역사로써 이 사실을 막아 “절종조치”(방지)를 하지 않으면 퇴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욕(죄)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규칙(원칙)에 맞는 참 속죄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 내 구원의 값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왜요? 다른사람이 이 값을 냈기 때문입니다.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값을 얼마나 내고 받습니까?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선물주는 사람이 이미 값을 내고 샀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기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선물도 이미 값을 치루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밝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구원에 값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외동아들)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라고 하셨습니다. 보다시피이, 죄의 삯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삯을 갚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외동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선물(은사)로 온 것입니다. 앞에 말한 로마서 6장 23절을 기억하십시오

까? 거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선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만이 영생을 은사(선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사이만 해도 은사(선물)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 하셨습니다! 선물은 일을 하여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무료로 줍니다.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됩니까? 그는 사랑이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이 문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해 놓았습니다:

### 로마서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구 말구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값을 이미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고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받기 힘들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구원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설명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내 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줄 아십니까? 그 뜻은 성경에 뚜렷하게 선언하는 것을 내가 말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받아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입을 벌려 "예수님이 내 주입니다"라고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생각만 했지 입으로는 한 번도 시인하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왜 말로 못할까요? 그저 한 번 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주입니다"라고.

한 번 예수님이 내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 후엔 로마서 10장 9절에서 계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믿으라는 것은 진심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힘든 일입니까?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율지 와싱턴(George Washington)을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분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한국 역사 책에서만 읽어본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지만 그 인물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

음속에 믿었으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 참으로 쉬운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디모데 전서 2장 4절). 그리고 그가 이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권고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구원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혹은 신용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말해서 그를 신용하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성취해 놓은 일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구절들을 몇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 \* 로마서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의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은 것을 믿었을 때에 내 죄값은 다 갚아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신용했음으로)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 된 것입니다).
- \* 로마서 3:28: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 \* 로마서 5:1: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 \* 로마서 9:30: “...곧 믿음에서 난 의요”
- \*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쉽게 구원을 얻을수 있다고 확증하는 구절들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충분히 알겠지요. 옛적에,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중에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한감옥 문지기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31)라고. 바울의 대답은 짧고도 확실한 지도였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사도행전 16:31)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감옥 문지기에게 대답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죄고백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결음 더나가서서 특별히 말하기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베소서 2 : 8, 9

너희가 그(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들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이 구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가야 하고 술과 춤과 여러 가지 등등을 금지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절이 전혀없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 - 우리가 무슨 행위로도 별 수가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함으로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여서 버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사람이 선하고 행실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본 것과 같이 좋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행위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예베소서 2:1). “죽은”사람은 아무런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새로남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하여서는 그저 무슨 짐작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며 또 예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습니다.

## 누가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행위로써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죄의 행위로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선물)와 부르심에는 후회(돌이킴)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미국에 신약성경

만 번역한 메세지(The Message)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로마서 11장 29절을 아주 더 힘있게 강조했습니다. 그 번역이: "God's gifts and God's call are under full warranty - never canceled, never rescinded." 우리말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보증서임으로 - 절대로 취소함이 없고 절대로 폐지함도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을 잃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구원은 영속하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모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여러번 되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폐계, 즉 취소함이 없다고 성경에 특별히 강조합니다.

\* 구원을 "거듭남" 혹은 "새 출생" (베드로 전서 1:3, 23) 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우리 부모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가 꿈쩍이 나쁜 자식이라서 부모가 싫어할 지라도 자녀권은 변경시킬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그의 자녀이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출생"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출생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며 - 한 번 태어나면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 또 다른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양자(입양)"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선뜻한 생각엔, 왜 우리를 "양자(입양)" 했다고 하실까?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을 터인데 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답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때의 로마법과 풍습에 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법에는 양자삼은(입양한) 아이는 취소하거나 저버릴 수가 없었지만 오히려 친자식은 자식권을 빼앗고 저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기록할 때에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취소할수도 없고 저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로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양자(입양)" 라는 단어를 사용 하신 것입니다.

\*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가 주시는 선물인 성령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선물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보증서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믿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어서 얻었고 또 성령으로 인치(통합)심을 받았다고 아주 명백하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13,14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매우 뿌듯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인치심(통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치(통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새어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

었을 때에 인치(봉합)심을 받았고, 또 그 인치(봉합)심이 영생의 “보증”이며, 우리가 “기업”을 주님과 더불어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한일서 3:1,2).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난 후로 하루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루는 그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듣고 해서 잘 아는 단어를 골라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변함없는 가족 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의 자녀들간에 하루는 그 집 자녀가 되었다가 다른날은 그 집 자녀가 안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정도 우리 사람의 가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영원한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지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며 그의 자녀라고 일컬으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씨”를 타고 나고 그리스도인들은 “섹지 아니할 씨”를 타고 납니다 (베드로 전서 1:23).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가정에 났다고 하며, 우리를취소할 수 없는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다고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땅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로마서 6:16). 누구든지 죄의 생활을 하면 대부분 그 죄가 그 사람을 죄감으로 괴롭게 하므로 우울함과 즐겁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죄는 사람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가혹한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가장 친밀한방법으로 그와 일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한 것입니다(로마서 6:1; 에베소서 2:6).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유일한 일을 놔두고 무엇때문에 우리일상의 죄와 함께 연합하고자 하겠습니까?

셋째, 사람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세상의 모든 선물중에서 가장 좋고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하나님 과 예수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하나님 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구원이 그들에게 필사적으로 필요 것

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업계도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실족일까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교회를 싫어하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위선적 행위입니다. 만약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않으면 그행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장래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다시 내려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듯이 그 왕국에서 모두가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6:27**

인자가(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 전서 3:12-15**

-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 (14) **만일 누구든지 그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손상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열외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후서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육의 몸)에 잇었음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골로새서 3:23-25**

-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미래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인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지금 이생에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따라 갚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윗면에 기록한 구절들 외에도 아주 알기 쉬운 말로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지금 이생에서 열심히 일하여 미래에 올 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풍성한 환영을 받도록 노력 하라고 강력히 권하십니다.



## 내가 과거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들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마서 3:10-12).”

하나님께서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살인죄인 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읽어볼 수 없으며 혹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간음죄인 만은 빼어 놓았느니라”하는 말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에서는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외동아들)을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6).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인중에서 내가 죄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그는 법적으로 아주 참된 일을 한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신다는 훌륭한 견본을 이 바울로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풍성하게 표현하십니다.

##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가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과 그와 교제 하는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 \*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신성(divine nature)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 \* 하나님 앞에 의로와졌습니다.
- \* 하나님 앞에 정의로와졌습니다.
- \*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습니다(이 뜻은 완전해졌다는 것임) (고린도 전서 1:2).
- \*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 \*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생활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유감스럽게도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결정짓는 데에 매여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기분 (내가 의롭고 거룩한 기분을 못느끼네 하는 자신에서 나오는 것들의 등등)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 주셨다고 하신 그의 말씀을 믿느냐 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린도 후서 5:7)라고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느끼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줄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주요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록 내 기분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를 지어준 그것으로 우리와 교통 하십니다. 비록 우리 기분에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함(완전함)으로, 또한 정의로움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려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가족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또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보통 구원받은 즉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즉시로 하나님이 해주신 큰 변화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 중독자가 술을 끊는 일. 이러한 일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과외로 있는 일이지 다 그렇게 된다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경건에 대한 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하지 말라, 속이거나 훔치지 말라고 하시며.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미워함과 보복심을 버리고 그 대신에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봉사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대하여 지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게 시간이 걸리며 노력과 단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선 두구절만 기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16,17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같은 훌륭한 분도 육체의 소욕과 씨름하고 괴로워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20절을 읽어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성공적으로 복종할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 날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지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 주시지 못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욕적인 그리스도인”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자기의 욕에 마음을 대면하여 싸워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말씀의 복종규칙으로 이끌어 순종하기로 작정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욕적인 그리스도인일 지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 성경에서 미래 영생의 생활이 어떠하다고 말해 주십니까?

말해 주시고 말구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사람의 전통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관한 진실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미래를 앞두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하게 하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자들이 영원히 “하늘나라” 공중 어느곳에 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분명하게 반대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들중 한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마태복음 5:5).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이유는 거기에서 사람이 즐기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래에 이 부정해진 땅을 없애고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장래에 양가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장래 새 땅에 대한 구절을 조금만 기록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자의 권고..** 이구절들을 낱낱이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뜨거워질 것입니다.

- \*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다니엘 2:44; 7:13,14; 요한계시록 11:7).
- \*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릴것입니다(이사야 9:7).
- \* 악은 없어지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시편 37:9-11; 에스겔 37:11,12; 다니엘 12:2,3; 스바냐 3:8-12, 마라기 4:1).
- \*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이사야 29:23,24; 예레미야 31:33,34; 에스겔 11:18-20, 고린도전서 13:12).
- \* 그 땅위에 공평과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이사야 2:4; 9:6,7; 11:1-5; 32:1,2,5,16,17; 예레미야 23:5,6; 33:15).

- \* 그때엔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이사야 2:4; 9:4-7; 미가 4:3,4;스가라 9:9-11; 호세아 2:18).
- \*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불구자들이 고침을 받아 건강으로 회복됩니다(이사야 29:18; 32:3,4; 33:24; 35:5,6; 예레미야 33:6; 마라기 4:2).
- \* 그때엔 해썬도 없고 상함도 없으므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이사야 11:6-9; 32:18; 54:14-17; 60:15-18; 65:17-25; 예레미야 23:4-6; 33:6; 에스겔 28:26; 34:25-31; 미가 5:4,5; 스바냐 3:13-17).
- \* 땅이 고침을 받고 사막지대가 기름지게 피어납니다(이사야 32:15; 35:1,2,7; 44:3; 52:3).
- \* 그때엔 음식이 풍부합니다(이사야 25:6; 30:23-26; 35:1,6,7;41:18-20; 51:3; 예레미야 31:5,11-14; 에스겔 47:1-12; 호세아 2:21; 요엘 2:19-26; 3:18; 아모스 9:13).

미래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음식, 재미, 그리고 친교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프지도 않고 전쟁과 싸움도 하지 않고 억울한 판단도 없고 우리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이 풍성하며 시간이 많으므로 서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목적있는 활동이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장래 그들의 생활에 이 모든것들을 영원히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항상 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지지 못한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단지 우리가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료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항상 이생에서 갖고자 원했으나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이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주시다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세요-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는것을 마음속에 믿으세요.

##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하십니다(로마서 6:23).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무료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다음 영생에 들어갈 때 어떠한보상을 받느냐에 관해서 판단을 받는데 그 보상은 그들이 이생에서 노력하고 행한 일들에 따라서 받을만한 대로 받게 됩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 보세요(고린도 후서 5:10; 골로새서 3:23-25; 데살로니가전서 4:6; 디모테 후서 2:12; 요한일서 2:28). 그리고 예수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가 성취해 놓으신 일에 대하여서도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생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오로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고 죄안에서 죽은자들은 불못에 던지움을 받아 불에 타 없어집니다(요한계시록 21:15).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의 역사로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얻는 것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이 행한 행위의 일로 판단 받음으로나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죄의 값을 내게 될 위험성이 더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즈음 세상에 도박과 복권(lotteries)이 세계적으로 공통되며 그걸 타는 것이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인 줄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만든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게 약이라”고 하면서 모르면 판단을 면할 줄로 알지만 이것은 참 좋지 않은 내기입니다.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렵듯이 들고는 자기네들 멋대로 걱정하고 살았으면 심판날에 별로 좋은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역사와 그 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양편간에 하나로 반드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면으로 유익하나 그를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무익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뻔히 알면서 누가 어찌자고 죽음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흔히 가르치기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불못에서 고통하는 영생은 형편없을 지라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구원 받은 자들만 영생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죄의 값 죽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한다고 많은 성경구절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멸망의 길이 바로 그들을 불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불에 탄다고 하는 것 같은 몇 구절들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원 성경에는 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의 사회에서, 원 뜻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불림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길을 “끝없이 먼 길” 이라고]. 또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18:9). 물론, 누가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금하기를 이처럼 신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날엔 어떤 악인들은 참으로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때엔 그 사람들이 타는 순간에 영원히 타는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 풀이한 몇가지 구절을 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불에서 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구절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멸망한다고 하신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로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에 “결국은 밭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라고 한 것처럼 명백한 구절들을 말합니다. 불로 멸망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꿈꾸며 원했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아이디어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기가 힘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그에게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책은 매우 적은 책이므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육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전혀 틀림이 없음을 믿을 수 있음에 대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데 도움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에 대하여 두려워 마세요-하나님께서 이해 하십니다. 확실히 모름으로 인하여 의심하는 것은 거만하고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도마가 믿기 쉽게 보이는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자기의 몸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꼭 자기를 찾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책에서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거나 보지도 못한 것들을 읽어 봅니다.**

전에 들어보았든 안들어보든 사실은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가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엄격한 지성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찾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겠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것과 또한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을 꼭 보여주시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교육사에서 여러분이 성경을상고 하는데에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교육사는 미국 인디애나(Indiana)에 있는 면세 교육사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더 전파시키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제가 수월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교육사를 제공하는데, 거기엔 성경조사, 성경을 가르치는 책 발행들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직접 강연자로 가르치며, 테이프와 저술(literature)로도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생활에서 주로 삼아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교장에서 받아들이는 기회가 열리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수고의 근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완전한 말씀이 원서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실수들과 반박들 혹은 불일치 되는 것들이 있거니와 이것들은 사람들이 원사본으로 인쇄 할 때 끼어 들어온 실수와, 번역할 때 실수했거나 혹은 기록한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번역한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사는 성경의 순결함을 밝혀 주는 데에 관련되는 모든 근원을 연구하는데, 거기에는 지리상이든, 전통이든, 언어든, 역사든

혹은 원인을 지배하여 주는 성경이든 모조리 다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우리는 전통으로 내려왔거나 혹은 “정통적 신념” 이라고 할 지라도 무조건 존중하는 대신 오직 진리(사실)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감찰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교사는 중 과가 없으며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중 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로 성경과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강건한 힘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하게 되어있으며, 도리에 맞는 방법과 집중적 조사의 결과가 바로 이 가르침이며, 따르기 쉽게 만들어 놓았으며, 실제적인 사용과 진실을 증명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며, 각 그리스도인들을 참 자유로 인도 하며, 대담성과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축복 외에 우리의 목적은 배우는 생도들이 각자가 손수 성경을 조사할 줄 알므로 자기의 대담성을 기를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효과적인 통신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사에서 제출하는 성경적 편집들은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주 예수그리스의 인도를 받아 독립적으로 지방 성도 교계 역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훈으로 교육시키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명을 본사에 접수하시고 무료로 뉴스 편지책을 받으시거나 혹은 모든 편집들을 완전히소개 하는 광고서를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Christian Educational Services, Inc.  
2144 E. 52nd St.  
Indianapolis, Indiana 46205  
(317) 255-6189  
E-mail: [Jesusces@aol.com](mailto:Jesusces@aol.com)  
[www.christianeducational.org](http://www.christianeducational.org)

번역(translated): 김영순(Yong Soon Kim)  
교정(Edited): 황옥진(Wook Jin Hwang)

Christian Educational Services (CES) authorizes you to reprint and distribute this document only in its entirety Any changes, minor or major, must have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CES. ©